

# 대학에서의 문학연구의 목표 설정과 그 실현 방법

김 채 수 /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문학은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문화나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수단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문학연구는 각 어문 계열 학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학을 민족정신의 계발 수단으로 이해한 근대 초의 문학연구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어 습득을 위해 설립된 어문학과로부터 문학을 해방시켜 여러 관련 강좌로 구성된 문학부와 같은 하나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 1. 서론 : 문학연구의 현황과 목표

현재 우리 대학사회는 여러 측면에서의 대내·외적 추세와 맞물려 대학교육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까지 대학이 전담해 오고 있는 문학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로 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문학연구의 목표를 설정하며 실현 방법을 정립해 보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학연구와 대학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가치있는 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현재 대학에서의 문학연구의 현황, 문학의 개념과 문학연구 방법, 인간의 문학적 행위와 표현행위, 표현연구와 방법론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대학에서의 문학연구의 목표설정과 그 실현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문학이란 말은 대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나는 시·소설·희곡·수필·평론 따위의 문예작품들이나 그들의 속성의 의미로서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문예작품들이나 그들의 속성을 연구하는 학문의 의미로서이다. '문학연구'라

는 말의 경우의 ‘문학’의 의미는 전자의 문예작품들이나 그것들의 속성을 가리킨다.

현재 이와 같은 문학연구를 행하고 있는 자들은 주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문학도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문학교수들이다. 대학에서 이들의 소속은 언어를 단위로 국문학과, 중문학과, 일문학과, 영문학과, 불문학과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소속학과에서의 이와 같은 각국 문학의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우선 소속학과 문학도들은 소속학과 교수의 지도를 받아 전공언어를 통한 언어 표현능력을 배양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공언어로 표현된 문장들을 해독해서 문학을 연구해간다. 소속학과 교수들의 경우는 자신이 전공한 언어를 가르쳐 가면서 그 언어로 표현된 문장들을 가지고 문학을 연구해가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문학연구는 대학에서 문학전공 학도들과 문학전공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문학연구 목표는 대개 다음과 같다. 우선 문학전공 학도들의 경우, 학부에서는 전공언어로 된 문학작품을 하나 골라서 작품내 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주제를 파악해 보는 수준이다. 석사과정 수준에서는 전공언어로 된 작품을 하나 골라 그것의 작품내 세계, 작품의 성립과정, 작품에 대한 독자반응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그 다음 박사과정 수준에서는 전공언어 사용국의 한 작가를 골라서 그의 작품들의 주제나 표현형식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이를 통해서 작가의 정신세계를 규명해보려는 수준이다. 문학전공 교수들의 경우는 근대나 근세 등의 시대나, 혹은 소설이나 시 따위의 장르 등을 단위로 해서, 한 시대의 문학자들의 정신세계나 표현형식 등의 특징

을 파악하든가, 혹은 어떤 한 문학장르의 성립 및 전개양상 등을 파악해서 그 시대의 정신이나 그 문학장르의 본질을 파악해 낸다. 그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시대나 다른 장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전공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민족정신이나 그 민족의 표현양식 등의 본질을 파악해 낸다. 국민이나 민족 수준에서의 문학연구, 즉 국문학 차원에서의 문학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문학을 연구해 간다고 할 때, 문학연구자가 평생을 해나간다고 해보았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학의 본질 이해라는 문학연구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 결과 현재 대학의 문학전공자들은 사실상 방황하고 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학도들 자신들에게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의 문학연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과 같은 단위로 개별적으로 행해짐으로써 문학연구의 목표와 방법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으로 대학의 문학연구 교육과정과 문학전공 교수의 교수법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문학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와서 원치 않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학도는 국문과 학생들을 제외하면 전부 외국어문제열 학생들이다. 만일 그들의 학업목표가 해당 외국어 습득에 있지 않다면 무엇에 있는가? 대학에서의 어떤 연구는 연구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 연구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현재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외국어문제열의 학생들은 해당 외국어의 습득이나 해당국의 문화적 이해 정도에 자신의 전공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정도이지, 그 이외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전공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려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에서의 문학연구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또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대학교육 개혁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우선 현재까지 서구에서의 문학에 대한 정의와 그 연구방법을 고찰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앞으로의 문학연구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 2. 문학의 개념과 문학연구 방법

현재까지의 문학의 개념과 문학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통해서 변천해왔다. 제1단계는 1960년대 초 서구에서 낭만주의가 성립되어 나온 시점의 이전까지로, 문학의 개념은 학문의 의미로 쓰였다. 제2단계는 낭만주의 성립을 계기로 그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 서구에서의 후기구조주의 성립 이전까지로 예술의 한 영역으로 쓰였다. 제3단계는 그 이후로 문화의 한 영역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1) 학문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학과 문학연구  
학문(學問)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밝혀진 사실들을 습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들을 몰아서 알아간다는 의미이다. 근래에 와서는 ‘연구’라는 말이나 영어

의 ‘Study’라는 말이 학문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나 Study의 의미를 갖는 학문으로서의 문학의 개념은 동서를 막론하고 ‘문자’라고 하는 어원을 토대로 성립되어 나왔다. 영어 ‘literature’나 불어 ‘littérature’ 등은 라틴어 ‘litteratura’로부터 나왔다. 라틴어 ‘litteratura’가 영어 ‘literature’로 들어온 것은 14세기 경으로서, 당시 그것은 ‘독서(reading)를 통해서 쌓은 교양(the polite learning)’의 의미로 쓰였다. 동아시아에서 ‘文學’이란 말의 가장 오랜 용례는 『논어』에서 보이는데, 당시의 의미는 ‘문에 대한 연구’의 의미로 쓰였다.

이와 같이 서구나 동아시아에서 문학의 의미에는 문(文)이나 문헌(文獻)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문(文)의 원래의 의미는 ‘글자’의 의미로 ‘말’에 대응되는 말이다. 인간에게 학문이란 그러한 글 속에 담긴 옛사람들이나 타지에 있는 인간들의 생각을 끌어내서 이를 가지고 모르는 것을 밝혀내는 작업을 말한다. 제1단계에서의 이러한 작업은 고문헌에 대한 연구로 요약될 수 있다. 근세 르네상스기의 인문학, 17~18세기 중국 복명학자(復明學者)들의 고증학, 한국의 실학, 일본의 국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서구에서의 르네상스기의 인문학은 서구가 11세기~14세기의 약 3세기 동안, 십자군원정을 통한 대 비그리스도교 문화권 침략과 몽고족으로부터의 유럽원정을 통한 그리스도교 문화권 침략 등을 계기로 새로운 문화권들과 접하게 됨으로써 유럽의 기강이 흔들리게 되자, 그리스도문화가 성립되어 나오기 이전 그들의 토대가 되었던 로마·그리스의 정신을 재생시켜 보려는 과정에서 나왔다.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고증학, 한

국의 실학, 일본의 국학도 동아시아의 각국이 북으로부터의 몽고족의 침략과 남으로부터의 그리스도교 문화의 전파로 인해 국세가 흔들리자 자기 민족들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학문들의 목표는 과거 자신들의 민족정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들의 민족정신을 정립해 보려는 것에 있으며, 그러한 목표달성의 방법론은 문헌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에 대한 도덕적 체계를 역사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입장이었다.

이상과 같이 제1단계의 문학의 개념은 문헌을 통한 지식 추구의 한 수단으로서의 학문의 의미로 쓰여졌고, 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전연구로 정착되어 나왔으며, 그 고전연구의 방법론은 과거 자신들의 문화를 역사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문헌학적 방법이었던 것이다.

2)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학과 문학연구 일반적으로 예술이란 미, 즉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 인간활동을 가리킨다. 어떤 물건의 제작기술(technique)의 의미로 쓰여져 왔던 예술의 의미가 인간의 미의 창조활동으로 전환해 나온 것은, 서구의 경우는 대개 칸트(1724~1804)이후의 일로 이야기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1890년 전후 일본에서 영어 'art', 불어 'art', 독일어 'Kunst' 등이 '예술'로 번역되어 나온 이후의 일이다. 이와 같이 문학이 미의 창조수단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서구에서 18세기말~19세기초 근대시민사회와 그 문화가 형성됨으로써였다.

18세기경부터 정립된 예술의 개념이 미의 창조활동이라면, 인간의 그러한 창조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인간의 예

술적 행위란 처음으로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학이 언어를 매체로 한 예술의 영역이라 말하는 것은 문학이 인간의 언어활동을 통해서 미를 추구해가고, 문학작품이 언어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문학이 인간의 언어를 매체로 하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개념화되어 나오자, 문학에 대한 연구방법도 전환되어 나왔다. 우선 문헌학으로부터 작가론으로 전환되고, 그것이 작품론으로, 담화론으로 전개되어 왔다. 작가론의 확립은 문학이 언어예술로 취급된 지 30여 년 만인 1830년대에 프랑스의 비평가 생트 뵈브(1804~1869)의 당대작가들의 시평(時評)들 『월요한담』(1851~1870)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작가가 쓴 작품이나 문장, 혹은 그 작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자료로 해서 작가의 정신세계를 밝혀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술의 본질을 규명해보려 했었다.

그러나 작가론은 아무리 연구해도 정답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20세기 초에 들어서 작품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작품론의 확립은 1920년대의 V.쉬클로프스키, R.야콥슨 등에 의한 러시아 포멀리즘, J.C.랜썸, A.테이트, R.워런 등에 의한 뉴크리티시즘 운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작품론이란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정신세계에서 작품의 예술성을 찾으려는 입장이 아니라, 작품 그 자체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후 작품론은 작품내 세계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해석되는 경향이 짙어지자, 1950년대 중반에 와서 그것에 대한 학문성의 결여가 지적되었다. 그러자 작품론은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 부상한 '담화론'

(dicours)에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담화론은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의 구조주의의 물결을 타고 나타나, 로랑 바르트의 『이야기의 구조분석서설』(1966) 등에서 확립되어 나온다. 그 이전의 작가론이나 작품론의 연구자들은 언어, 즉 말이나 글 속의 내용을 통해서 예술의 본질을 이해해 보려 하였다. 작가론이나 작품론의 연구자들은 작가의 정신세계나 작품세계의 내용물들을 가지고 예술의 본질을 규명해 보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담화론의 연구자들은 언어의 본질을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규정짓고, 그 언어의 원형을 글에서가 아닌 말로부터 찾아내서, 말의 의사전달 방법을 규명해서 그것을 통하여 미적 의식의 생성원리를 파악해 보려 했다. 이와 같은 담화론을 기호로 성립된 문예이론을 '서술학'(Narratology)이라고 한다.

3)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학과 문학연구 서구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문화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적응체계'로 개념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8년 소위 '5월혁명'을 계기로 형성되어 나온 후기구조주의를 계기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적응체계로서의 문화에 대한 개념은 '하나의 의미체계'라는 말로 전환되어 나왔다.

문학을 문화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고 문화를 하나의 의미체계로 볼 때, 문학이란 문화라는 커다란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장르이다. 문화가 하나의 의미체계로 개념화된 것은 구조주의가 후기구조주의로 전환되어 나와, 그것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서구에서의 구조주의는 F.소쉬르의 『일반 언어학의』(1916)를 통해 정립되어 나왔다. 소쉬르는 언어를 가장

대표적인 기호로 파악하고, 모든 언어기호를 말의 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호형식', 그 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기호내용'이라 하였다. 이 경우 말을 대표로 하는 청각기호는 기호형식과 기호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J.데리다는 청각기호의 대표격인 말 속에서 형상(形象)을 발견해낸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말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결국은 형상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 언어의 본질은 청각으로 감지되는 말보다는 시각으로 감지되는 글에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각기호의 대표격인 글의 경우, 독자는 글의 기호형식으로부터는 청자의 경우처럼 제약을 받지만, 글의 기호내용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몸이 된다. 다시 말해서 글의 내용은 독자에 의해 생성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독자는 텍스트의 시각기호들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생성해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후기구조주의 시대에서 문학은 기호를 매체로 하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 개념화되어 나왔다. 이 경우 문화가 하나의 의미체계라 한다면, 문화현상이란 하나의 의미현상이다. 그리고 문화연구는 의미현상을 파악하고 의미체계를 추구해가는 작업이다.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다름아닌 기호를 매체로 해서 일어나는 의미현상을 규명하고 의미체계를 추구해가는 하나의 작업이다.

인간에게 기호(記號, sign)란 무엇인가? 우선 기호에 대한 개념은 가장 간단히 말해서 '어떤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거나 의미하거나 상징한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기호가 어떤 의미의 전달수단이라면, 언어야말로 가장 대표적 기호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후기구조시대이후의 문학은 앞에서 우리가 말한 바로 그러한 기호를 매체로 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의 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문학이 언어를 매체로 한 존재가 아니고 기호를 매체로 한 존재로 개념화될 때 문학에 대한 연구란 다름이 아니고 기호현상, 다시 말해서 의미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의 문학은 하나의 의미체계나 기호체제로 일컬어지는 문화의 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 3. 인간의 문학적 행위와 표현 행위

이상과 같이 문학은 글을 매체로 하는 학문의 한 영역으로 출발해서 언어를 매체로 하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기호를 매체로 하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 전개해 나왔다. 이에 따라 문학연구의 경우도 글이라 하는 문장이나 그것으로 이루어진 문헌들에 대한 연구, 즉 문헌학에서 출발해서, 작가론·작품론·담화론으로, 기호론으로 전개해 나왔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개념화되어 연구 되어온 문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즉, 인간의 문학적 행위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문학적 행위는 한마디로 창작행위와 감상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작과 감상행위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인간의 문학적 행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해낼 수 있다.

#### 1) 창작행위와 감상행위

인간의 문학적 행위로서의 창작행위는 인간이 언어나 기호로 어떤 작품세계를 창작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말이나 이야기를 행하는 것이란 어떤 행위인가? 화자가 청자에게 말이나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화자는 청자에게 전달할 말이나 이야기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말할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선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화자에게 그 내용은 현실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미 준비해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말이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전에 마음 속에서 만든다든가, 혹은 말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 간다. 그런데 그 말이나 이야기의 내용은 영상을 뼈대로 한 어떤 관념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화자가 현실세계의 여러 경험에서 취한 것들이 의식의 세계 속에 저장되었다가 끌어내져 엮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이야기를 하기 전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의식의 세계 속에 자료로 저장된 생각이나 영상들을 끌어내서 하나의 관념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청자가 화자로부터 어떤 말이나 이야기를 듣는 행위는 어떠한 것인가? 이는 청자가 화자로부터 말이나 이야기를 들어가며 자신의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들이나 그것들을 핵으로 해서 뭉쳐져있는 관념들을 끌어내서 하나의 커다란 관념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사람들의 글쓰기 행위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글쓰기란 우선 필자가 자신이 글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다음 그것들을 꺼내서 글로 엮어서 보다 섬세한 하나의 관념의 세계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인간의 창작행위도 바로 이와 같은 행위들의 경우처럼,

창작주체의 의식 속에 저장된 여러 영상과 관념의 뭉치들을 의식세계로부터 취해 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형상세계를 만들어 가는 행위이다. 인간의 감상행위도 창작행위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감상의 주체가 자신의 현실에서의 작품과의 접촉을 계기로 해서 감상자의 내면세계로부터 작품의 형상들에 의해 불러 일으켜진 영상들을 가지고 어떤 형상세계를 만들어 가는 행위이다. 그러면 창작자나 감상자가 하나의 형상세계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그것을 보고 싶는데 볼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상상해 보는 것이며, 그것을 상상해 봄으로써 볼 형편이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작품의 창작행위나 감상행위가 인간의 어떤 표현행위를 기초로 해서 성립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표현의 본질

인간에게 표현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이유를 규명해냄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현행위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말한다. 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감각적 대상들을 가지고 어떤 형상이나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은 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려 하는 것인가?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감각적 대상들로 어떤 것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이 어떠한 것인지 성격 규정을 하게

되며, 그 성격 규정은 인간 자신의 외부로부터의 여러 다양한 자극들에 대한 총체적 경험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어떤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 내거나 행동에 옮기기 전에 우선 그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그것과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본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인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내거나 행동에 옮기게 된다. 이 경우,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고 그 자극과 관련된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가 상상해 본다는 것은 자극을 받기 이전의 자신과 자극을 받은 후의 자신과의 어떤 이상적 관계 정립을 모색해 보기 위함이다. 또, 인간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상상해 본 것을 타자에게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는가 행동으로 실행해 보는 것도 결국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은 이후 자기와 자기의 외부세계와의 어떤 이상적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하고 또 그것을 감각적 대상으로 표현해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내려다 보는 자신이나 자신의 외면세계에 존재해 있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내면세계의 실상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것을 상상해 본다던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감각화하여 전달하는 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상대방에게 자극을 가하는 행위이다. 자극을 가하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그러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극을 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에게 필요한 자극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항상 무수히 크고 작은 자극들을 받아야 한다. 상대방의 측면에서 말할 것 같으면, 표현이란 그러한 자극들 중의 하나이다.

인간에게 자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인 감각적 대상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취해진다. 인간은 그러한 자극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고, 또 그 자극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물들이 자극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물체들로부터 얻는 느낌은 어떤 단어나 문장을 보고 취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그러한 사물로부터 취하는 느낌이나, 혹은 언어와 같은 기호들로부터 취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인간과 대상들과의 보다 이상적인 관계의 추구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표현이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이상적 조화관계를 추구해가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파악된다.

### 3) 표현과 문학연구

인간에게 표현이란 인간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어떤 감각적 대상으로 구체화시켜 그것들을 타자들에게 전달해서 그 타자들과의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행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표현이란 타자들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추구수단이다.

인간은 그러한 표현행위를 매개로 하여 타자들과의 관계를 맺어간다. 모든 인간들은 표현자들인 동시에 표현상대들이다. 또 인간의 모든 느낌이나 생각은 어떤 감각적

대상들로 형상화됨으로써 인간의 의식세계에서나 현실세계에서 존재하게 된다. 인간의 그러한 것들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감각적 대상으로 표현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문화라 말한다. 표현상대의 입장에서 취해지는, 현실세계에서의 인간의 어떤 것들에 대한 감상행위는 사실은 의식세계의 차원에서 어떤 것에 대한 형상화작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감상은 표현에 내포되고 표현은 감상에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현실세계에서의 표현행위는, 의식세계에서는 감상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파악해 볼 때 감상은 표현에 내포되고, 또 표현은 감상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한 면에서 표현과 감상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존하는 것이며, 결국 그것들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과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가 상호간의 이와 같은 표현행위를 통해서 성립되었듯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인간의 자연에 대한 입장과 자연의 인간들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에게 표현은 인간과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의 추구 수단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적응 체계라든가, 의미체계 등으로 개념화된 문화와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냐? 인간의 문화가 자연에 대한 적응체계라든가 의미체계로 개념화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표현 체계야말로 다름아닌 문화체계라고 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현물로서의 어떤 기호가 기호형식과 기호내용으로 이루어졌듯이, 표현도 표현형식과 표현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들의 표



현물들과의 시각적·청각적 접촉은 표현물들의 표현형식의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인간의 표현물들로부터의 내용 파악은 현실세계에서의 그러한 감각적 접촉을 계기로 해서 의식세계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적응체계는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감각기관들과 표현물들의 표현형식들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현실세계의 차원에서 추구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간의 의미현상은 현실세계에서의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의식세계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의미체계도 바로 그러한 의식세계의 차원에서 추구되어 온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찰해 볼 때 인간의 문화적 행위도 인간의 표현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문학을 문화의 한 영역으로 파악할 경우, 그것은 표현을 매체로 했을 경우이다. 인간의 표현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감각적 대상들로부터 그 감각적 대상들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들을 끌어내서 그것들을 감각적 대상으로 구체화시켜 감으로써 인간과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해 가는 행위이다. 문학연구는 바로 인간의 이러한 표현행위를 연구해 가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 4. 표현연구와 방법론

##### 1) 표현연구의 목적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문화현상이 표현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표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여러 종류의 표현물들로 구성된 세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은 그러한 표현물들의 표현들을 통해서 성립되어 나온 존재이다. 이 경우 표현의 주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돌·모래·산·하늘 등과 같은 무생물들의 표현, 풀·나무 등과 같은 식물과 나비·소 등과 같은 동물들의 표현, 그리고 인간들의 표현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예컨대 모래와 같은 무생물이나 나비와 같은 생물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포착되는 모래나 나비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것들이 그러한 특성을 취하게 된 원인을 규명해서 그것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 결국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존재를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공간적 좌표와 시각적 좌표가 파악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물체나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할 때, 그것이 언제 어디에 있었다든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더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어떤 세계를 구상해서, 그 세계와 그것과의 관계양상을 상상해 봄으로써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 자신의 존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어떠한 세계에 어떻게 처해 있는가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장소가 어떠한 세계이며 자신이 그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파악해보려 하는 것

인가?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세계에 대해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과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와의 관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삶의 목적, 방법, 의의 등이 명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표현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이 처해 있는 세계의 실체를 규명해 내서 그 속에 존재해 있는 인간과 그것과의 이상적 관계를 정립해 보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학작품을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 잡힌 언어표현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것의 원인을 규명해 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원인을 규명해 내는 것은 그것을 창출한 사회나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과의 이상적 관계를 추구해 보기 위해서이다.

## 2) 표현연구의 방법

연구란 연구대상에 내재된 어떤 질서를 파악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방법이란 연구대상에 내재된 어떤 질서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연구대상에 내재된 어떤 질서를 도출해내기 위한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어떤 표현물을 연구하려면, 우선 연구하는 표현물이 어떠한 시각에서 표현되었는가를 검토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그러한 검토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연구대상에 대한 입장, 즉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의 시각을 정립시켜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자신이 왜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연구는 그 목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우리가 표현되어진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표현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그 정보란 어떠한 정보인가? 인간의 최대 관심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다. 인간은 항상 변해가는 존재이다. 변화를 통해서 현재에 이른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의 관심의 기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인간에게 최대의 변화는 역시 죽음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현재 인간이 행하는 어떠한 일도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날 죽음이라고 하는 대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할 죽음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현재를 구성하는 것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단절로 인식되는 죽음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의식의 극복양식이 다름아닌 인간의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가, 어떤 것을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는 연구자는 연구대상으로부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얻어내려 한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성립과정과 전개과정을 규명해 봄으로써 연구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이 어떤 것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연구대상의 성립과정과 전개양상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어떤 것의 성격 파악은 그것의 성립과 전개양상 과정의 파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모든 의식 대상은, 인간의 존재가 그러하듯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고 전개되어 나왔다. 지구상에서 우리의 감각에 잡히는 모든 대상들은 지구가 온도가 다른 우주공간을 이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어 나와서 변화해 가는 존재들이다. 또 지구상에서 바라다 보이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모든 존재들도 태양, 태양계, 은하계들이 서로 맞물려 우주공간을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변화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의식대상의 성립과 변화의 과정을 밝혀서 우리와 의식대상과의 이상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면에서, 표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의 과정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상의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요구된다.

### 3) 방법론과 세계관

과정규명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취해진 방법론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에 잡힌 모든 대상들의 일반적 특성이 고려되어 취해진 방법론이다.

현재 방법론은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다. 일반방법론과 개별방법론이 그것이다. 일반방법론이란 인간과 세계와의 이상적인 관계를 추구해 간다는 차원에서의 방법론이다. 개별방법론이란 여러 특수한 것들로 한정된 구체적 개인으로서의 연구자와 구체적 인 개물로서의 연구대상과의 어떤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의 방법론이다.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반방법론은 연역법적 방법론과 귀납법적 방법론이 있다.

그러면 금후는 어떠한 일반방법론이 성립되어 나올 것인가? 이것은 금후 인간들이

어떤 세계관을 정립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인의 관심은 구조에서 과정으로 전환해 나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지구내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구 내의 인간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해 온 입장을 버리고, 지구 밖의 우주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이다. 지구밖의 우주의 시각에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접근한다는 것은 지구의 공·자전을 통한 우주공간이동, 그것이 맞물려 있는 태양과 태양계의 공·자전을 통한 우주공간이동, 또 그것이 맞물려 있는 은하계의 공·자전을 통한 우주공간이동 등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는 현재까지 우리의 감각에 잡힌 모든 대상들을 가지고 구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우주론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세계이다. 현재 우리가 존재해 있는 우주는 150억 년 전 중성자보다도 더 작은 초고밀·초고온의 한 점으로 응축되었다가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켜 탄생해 나와 현재 절대공간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폭발해서 팽창해나가는 우주는 광속직진을 통해서 반사·굴절·회전 등의 현상을 일으켜 가는 광자들로 구성된 존재이다. 그런데 광자란 우주속에서 질량을 0으로 하고 진동수는  $V$ 로 해서 광속 직진하는 에너지 입자이다. 그것들은 우주속에서 항상 진동수가 다른 광자나 물질들과 충돌해서 진동수가 다른 존재들로 변모해 나간다. 그 경우 진동수가 0에 가까운 것들은 절대공간 속에 흡수되어 버리고, 진동수가 무한에 가까운 것들은 질량을 갖는 물질로 변모해 나온다. 현재 우주는 이러한 광자들과 그것들의 응결체들인 물질로 구성되어, 광속으로 사방팔방의 절

대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공간과의 합일상태를 추구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는 비존재공간과의 합일을 추구해가고 있는 존재며 지구가 우주공간을 이동해 가는 것도 그것이 태양계, 은하계 등의 공·자전운동 등을 통해서 비존재와의 합일을 추구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이상과 같은 세계 속에서 존재해 있다. 인간의 연구활동의 일반적 방법론이 세계관의 정립과 그 세계에 대한 인간의 확고한 입장정립을 기초로 해서 확립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인 문학연구 방법은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가 바로 이상과 같은 세계라는 것을 명확히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자신이 연구해 보려는 대상에 접근해가는 방법이다.

## 5. 결론 : 문학연구의 목표와 방법

문학은 표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문학적 행위는 표현행위이고, 문학연구는 표현연구이다. 인간에게 표현이란 인간의 감각에 잡히는 대상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한 의미파악과정에서 생성되는 느낌이나 생각을 인간의 감각적 대상으로 구상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표현은 인간과 세계와의 매개수단이다. 인간에게 세계는 사회와 자연으로 구성된다. 인간은 표현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만나가고 자연을 구성하는 자연물들과 접해 간다. 이 경우의 표현은 인간에 의해서 표현된 표현과 사회 내지 자연에 의해서 표현된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다.

우리가 우리와 세계와의 매개수단을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와 세계가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해가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 보다 이상적 관계를 맺어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글을 쓴다고 해서 상대방과 이상적인 관계가 꼭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의 사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의 사용법 연구를 언어연구 또는 언어표현연구라 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국내 대학의 각 어문학과에서의 문학연구는 그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어문계열학과에서의 문학연구는 해당외국어의 습득과 그것을 통한 해당 언어국의 국민적 정서나 감정,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민족정신 등의 이해에 그 목표가 있다. 문학의 연구가 표현에 대한 연구라면, 대학의 각 어문학과에서의 문학연구는 그 해당언어의 습득이나 그 언어에 대한 고찰을 통한 표현연구가 되어야 한다. 또 대학의 각 어문학과에서의 그러한 연구는 학생들이 해당언어의 습득을 통해서 보다 다채로운 표현생활을 영위해 간다고 하는 데 그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 설혹 학생들이 해당언어의 습득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학과의 수업을 통해서 다채로운 표현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어문계열학과의 학습목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문학과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보다 다채로운 표현생활을 위해서 표현수단을 하나 더 취해 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외국어문계열 학

과의 학습목표는 해당언어습득이나 해당언어연구를 통한 다채로운 표현능력의 함양이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금후 대학에서의 문학연구의 목표는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와의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표현력의 함양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문학연구의 목표를 표현력의 함양으로 파악해 볼 때, 문학연구의 방법은 인간과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의 정립 방법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문학이란 표현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문학연구는 표현에 대한 연구이다. 인간에게 표현이란 다름아닌 삶의 실현 방법 그 자체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 문학연구의 방법은 다름아닌 바로 표현을 통한 삶의 실현을 연구하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정되는 문학연구의 목표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현재 한국 대학에서 문학연구는 어문계열 학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그것도 각 학과가 단위가 되어 독자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학연구 방법은 문학을 민족정신이나 국민정신의 계발수단으로 이해했던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민족주의

나 국수주의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했던 근대 초의 문학연구 방법, 즉 국문학연구의 방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문학은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문화나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수단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학은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지리, 철학, 심리학 등과 같은 인문과학은 물론이고 생물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 설립된 어문학과로부터 문학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문학과나 일문학과와 같은 각 어문학과를 강좌단위들로 해체시키고 그것의 상위단위로 앞에서 제시한 문학연구의 목표가 이상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여러 관련 강좌들로 구성된 예컨대 문학부와 같은 하나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는 현재 거론되는 학부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

김채수/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 대학 문예언어연구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미국 하버드 대학, 홍콩 중문 대학, 중국 북경대학 객원교수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죽음>의 내재양식-가와바타 아스나리』, 『영향과 내발-시대구분 기준론』, 『21세기 문화이론 과정학』 등을 발표했다.